



구월의 향기 중구(重九)

강 목
자유기고가

하늘이 드높고 말이 살진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풍요로운 절기이다. 음력으로 9월 9일(양력으로 10월 7일)을 중구(重九), 또는 중양일(重陽日), 중양절(重陽節)이라고 한다. 중구는 구(九)가 겹친다는 뜻이고, 중양은 양(陽)이 겹친다는 뜻이다.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奇數]를 ‘양(陽)의 수’라 하고, 짝수[偶數]를 ‘음(陰)의 수’라 하여 ‘양의 수’를 길수(吉數)로 여겼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절일(節日)로서 설(1월 1일)·삼짇날(3월 3일)·단오(5월 5일)·칠석(7월 7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절은 양수(陽數)를 길수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기수민속은 양의 수가 중첩된다는 의미에서는 다 중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개 중양이라고 하면 중구를 가리킨다.

이때는 국화(菊花)가 만발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9월을 국월(菊月)이라고도 하고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므로 국추(菊秋)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월조에 의하면 “서울 풍속에 9월 9일에 사람들은 떼를 지어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가 먹고 마시며 흥겹게 논다. 이것은 등고(登高)의 옛 풍속을 답습한 것이다. 청풍계(淸風溪), 후조당(後凋堂), 남한산(南漢山), 북한산(北漢山), 수락산(水落山)등이 단풍놀이를 하기에 아주 뛰어난 곳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중구를 비롯한 기수민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대(漢代) 이래로 중구절에 상국(賞菊)·등고(登高)·시주(詩酒)의 풍속이 있었고, 당송대(唐宋代)에도 관리들의 휴가일로써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중구의 풍속이 전해져 왔다.

신라시대에는 안압지의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月上樓)에서 군신이 중구에 연례적으로 모여서 시가를 즐긴 듯 하며, 고려시대에는 중구의 향연을 국가적으로 정례화 하였다. 또, 조선 세종 때에는 삼진날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였으며, 중앙절에 노인잔치를 크게 베풀어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올렸다. 민간의 서당에서도 이 때 글짓기 대회를 여는데, 보통 이를 일컬어 백일장(白日場)이라고 한다. 백일장에서는 주로 시 짓기를 겨루며 대개의 경우 한 가지 제목이 정해져, 그 제목에 맞춰 시를 짓게 된다.

각 가정에서는 중구에 노란 국화 꽃잎을 따다가 찹쌀떡을 만들어 먹는다. 국화 중에서도 재래종 들국화는 그 향기가 맑고 무척 강렬하다. 이것을 따서 술을 빚은 것이 국화주(菊花酒)다. 옛날 중국에서는 국화주가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하여 많이들 담가 먹었다 한다.

국화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團子)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국화전(菊花煎)이다. 또한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 등을 잘게 썰어서 꿀물에 타서 화채를 만들어 시절음식으로 먹었다. 3월 삼진날 진달래로 화전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가을철의 향기로운 맛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가을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 산에 오르기를 즐겼다. 특히 중앙절에는 음식을 장만해 산으로 올라가 노니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사람들은 때를 지어 단풍이 든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서 장만해 온 술과 음식을 들면서 단풍놀이를 즐겼다. 이를 ‘중양풍국유(重陽楓菊遊)’라고 한다. 이때에 선비들은 시를 짓고 풍월을 읊어 주흥을 돋우기도 했다.

단풍나무 잎은 빨간빛으로, 은행나무 잎은 노란빛으로 제각기 곱게 물든다. 가을의 산은 이처럼 갖가지 색으로 물이 든 나뭇잎과, 푸른빛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상록수의 잎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단풍은 그 색이 곱기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다. 특히 설악산의 단풍은 험준한 바위산과 함께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그 밖에도 내장산, 속리산의 단풍이 아름답고, 북한 지방의 금강산과 묘향산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중구에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풍속이 전해 온다. 성주단지에 햇곡식을 갈아주며 제물을 차려 성주차례를 지내는 곳도 있었고, 기일(忌日)을 모르는 조상이나 연고자 없이 떠돌다 죽은 안타까운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었다. 한편, 추석 무렵에 햇곡식이 나지 않아 차례를 지내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날에 차례를 지냈다. 이는 처음으로 생산된 햇곡식을 조상에게 바치고자 하는 정성이 담겨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구는 부녀자들이 약수터에 가느라고 분주한 날이기도 했다. 3월 3일, 즉 삼월 삼진날에 약물 신(약에 대해 힘을 다스리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9월 9일 중구에는 돌아가므로, 이 날이 지나면 몸을 씻어도 덕을 못 보기 때문이었다.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이슬이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장차 응결되려고 한다는 한로(寒露)와 이슬이 응결하여 장차 서리가 되어 내린다는 상강(霜降)의 절기가 들어있는 달이다.

구월이라 늦가을이니 한로 상강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기러기 언제 왔느냐
 창공에 우는 소리 찬 이슬 재촉한다
 온 산 단풍은 연지를 물들이고
 울 밑 노란 국화 가을 빛깔 뽐낸다
 구구절 좋은 날 꽃부침개로 제사 지내세

〈농가월령가〉 9월령의 가사에서 노래한 가을 풍경이다. 바깥 날씨는 싸늘해져 어느새 서리가 내리고, 산에는 서리 맞은 나뭇잎들이 화사한 빛으로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시기적으로 중구는 약초가 한고비를 이루는 때였다. 구절초(九節草)는 이때가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산이나 들에 나가 많이 뜯었다.

한편,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중구 날 제비가 다 강남(江南)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이 시기가 되면 제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비들은 한 여름 동안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한 가족을 이룬 후, 겨울의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고장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또한 여름에 있던 모기가 이날부터 없어지고, 뱀과 개구리가 동면하러 땅 속으로 들어간다. 화창한 봄날에 꽃과 버들을 구경하는 것과 같이, 단풍이 들고 국화가 한창일 때 남녀들이 이를 보며 즐겼던 중구의 아름답고 정겨웠던 옛 세시풍속이 그림다. 🍂

